

情報化時代의 韓國

—한국인의 원형과 정보화시대의 汎패러다임—

金 容 雲*

< 목 차 >

- I. 序論
- II. 새 思潮와 原型
- III. 原型과 企業
- IV. 韓國의 近代化
- V. 情報化時代

I. 序 論

情報化社會에 있어서의 한국을, 오늘날의 韓國的인 現象과 未來社會의 特性 사이에 벌여지는 긴장관계로 파악한다. 즉 傳統과 衝擊의 力學關係이기도 하다. 韓國의 工業化 또는 産業化는 한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사를 몇 개의 시대로 分割하여 論함으로써 무시되는 한국적 특성을 되도록 부각시킨다.

정보화사회는 공업화의 연장선상에 다양한 情報的 要因이 가미됨으로써 형성된다. 한국 공업화사회의 특성과 정보화 사회의 관계를 고찰한다. 각 시대의 특성은 대략, i) 社會的 構造 ii) 經濟的 基盤 iii) 價値觀 등으로 파악한다. 이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되면서 하나의 社會風調를 형성해나간다. 이들 사이에 새로운 變革의 衝擊이 가해질 때 時代의 精神은 分裂되면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하나의 양상으로 수렴되어 간다.

본 논문에서 各 時代의 社會的 樣相을 汎패러다임으로 파악하고, 다음 세대의 汎패러다임 사이에 전이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민족을 하나의 生命體로 파악하여 각 시대의 汎패러다임을 관통하는 民族原型을 고찰한다.

汎패러다임을 하나의 상징적인 개념(catch phrase, key word)으로 파악하고, 낱말의 현상의 의의를 그 개념과의 관계에서 파악한다. 부분적인 현상이 전체를 통제하는 것, 즉 汎패러다임을 조명하여 그 의미를 파악한다.

* 漢陽大學校 數學科 教授

구체적으로 오늘날 韓國의 經濟的 特性, 엘리트주의, 美意識, 價値基準 등이 부각되어야 하고, 情報化社會에 있어서의 이들의 변화가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II. 새 思潮와 原型

인류사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현대인은 이제 高度産業社會를 맞이했다. 종래의 대량생산위주의 공업사회에서 정보중심의 사회로의 이행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로스토우(W.W. Rostow)는 시대의 흐름을, “전통사회→take off(급격한 발달)의 전단계적 사회→take off의 사회→고도대중소비사회”(the stages of economic growth)로 나누었다. 그는 마르크스에 맞서 반공산당 선언을 하면서도 그 논리의 본질에서 인류는 모두가 똑같은 發展段階를 밟는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마르크스와 같은 입장이다. 각 단계의 이름은 저마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사회학자들은 인류가 일률적인 단계를 거쳐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 하지만 한국 공업사회의 발달과정의 실상은 그런 단락적인 이론으로는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韓國工業社會는 일본·미국은 물론 세계 어느나라와도 다른 특유의 내용과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 차이는 韓國傳統社會 기반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의 과정, 또 그것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는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한 나라의 經濟活動은 자본·기술 외에도 그 사회구성원들의 價値觀·創造性 등 온갖 내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한국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는 한국고유의 가치관과 다가오는 사조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1. 原型理論

수 많은 사회학자·인류학자·문명비평가 등 민족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지성들은 민족 고유의 사조가 표면적인 의식보다도 훨씬 뿌리깊은 곳에서 각 민족문화현상을 지배하여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民族性’, ‘文化的 基本的인 것’, ‘文化統合’ 등 표현하는 말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뜻은 한결같이 각 민족의 역사를 움직이는 정신성, 곧 에토스(ethos)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R. 베네딕트(R.F. Benedict, 1887~1948)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을 ‘文化’, 그리고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요인을 ‘文化統合’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여러 문화의 본질적인 내용과 그 차이를 비교하면서 문화통합의 오랜 연속성을 지적했으며, 문화의 유형으로 아폴로형·디오니소스형·파라노이드형 등을 들었다.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A. 지그프리트

(A. Siegfried, 1875~1959)는 民族心理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의 프랑스인에게 는 조상인 고트인(벨기에·북이탈리아·프랑스 일대에 살고 있었다)의 특질을 발견할 수 있고, 역사가 투키디데스(Thucydides, BC 460~400)가 당시 바르바로스인이나 유대인의 특 성으로 보았던 것을 오늘의 독일인과 유대인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베네딕트의 ‘文化統合’, 지그프리드의 ‘民族心理’는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데 지나 지 않는다. 특히 지그프리드는 현재 우리들이 보통 ‘민족’이라고 말하는 큰 集團을 대상 으로 했고, 베네딕트는 마치 科學者가 실험실에서 어떤 한 미세한 물질을 관찰하는 것처럼 고립된 ‘부족’을 대상으로 관찰하였을 뿐이다.

베버(A. Weber 1868~1958)는 문명과 문화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하였다.

文明이란 인간이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한 生物學的인 發展系列이며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普遍的이고 必然的인 세계이다. 말하자면 수학의 구조물 과도 같다. 한편, 문화란 정서적인 토양에서 태어나는 것이며 그 속의 모든 것이 인간의 개성적인 것에서 태어나고 가장 人格的인 것을 형성한다. 또한 그것은 生物學的인 목적 을 초월한 세계이기도 하다.

요컨대 문명이란 축적된 기술과 지식이고, 문화는 그것을 추진시키는 정신성이다. 문명 의 내용은 다른 것에 쉽게 융합될 수 있으나, 문화는 문화권 또는 민족집단 속에 정착되어 있다. 민족정신은 문화의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공업화, 정보화사회에 서 제기된 문제들은 기계, 기술, 노우하우 등 문명적 요소를 우리문화의 토양에 정착시키 는 데서 발생한 것들이다.

이들 인류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들은 민족적 에토스에 대한 정의를 각자의 철학적인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달리 내렸으나, 각 民族 또는 文化圈에는 저마다 완결된 고유의 價値 體系가 있음을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다. 이 사실을 두고 파스칼은 피레네산맥의 전면과 이 면에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다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피레네산맥보다 훨씬 넓고 험한 현해탄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맞이하게 될 공업화 또 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그릇되게 인식케 할 위 험이 있다.

‘文化統合’, ‘民族心理’, ‘個性的인 文化精神’이란 말들을 여기서는 ‘民族原型’ 또는 간 단히 ‘原型’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원형’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융(C.G. Jung, 1875~1961)이었다. 융은 심리학의 차원에서 인류의 원형을 생각하였다. 그는 태고 때부터 인간의 조상들이 체험한 일들이 오늘날까지 전달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날 인간의 성격을

지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 그것을 '原型'이라고 불렀고, 각자의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용은 "集團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생명력이 있는 집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그것을 '集合的 無意識'이라고도 불렀다.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이 사회와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듯이, 개인의 마음의 뿌리에는 사회의 집합적인 심성이 깔려져 있으며 그것이 곧 '集合的 無意識'이라는 것이다.

인류의 원형에 관한 생각을 범위를 좁혀 民族單位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여기서 각 민족의 조상이 공통적으로 체험한 일이 오늘의 民族構成員의 의식을 결정하고 있다는 명제를 얻는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적인 무의식의 광대한 기반 위에 있다. 개인의 마음은 집합적인 심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빗대어 말한다면 '인간의 마음은 社會的이다'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민족마다 그 사회에서 형성된 체험에 따라 조직에 대한 忠誠心, 團結力, 創意力 등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민족 특유의 정신적 기반 위에 저마다 공업화사회를 형성했으며, 특히 오늘날 한국의 경제구조와 발전과정도 한 민족의 원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民族原型

민족의 형성단계에서 있었던 民族史的인 體驗이 민족원형을 만들어 낸다. 민족이동에 따른 원주민과의 사이에 빚어진 갈등·협조·좌절 등의 흔적들도 그들 민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오늘의 민족원형으로부터 조상들의 체험을 추출할 수 있고, 또 거꾸로 오늘의 集合的인 經驗에서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원형의 토양에서 個的인 존재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한다.

民族原型은 일단 형성되면 민족주체가 그대로 생존하는 한 거의 변치 않는다. 이 점에서 민족은 개성을 지닌 큰 생명체인 것이다. 마치 한 사람의 몸에 수십만개의 세포가 늘 생과사를 되풀이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인간은 매일 태어나고 죽으면서 民族이라는 거대한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생명체에는 명확하고 독자적인 민족의 심성이 있다. 그것이 민족원형이다. 민족은 저마다 그 원형의 기반 위에서 고유의 문화를 創造한다.

3. 汎패러다임

쿤(T.S. Kuhn, 1922~)은 1962년 『科學革命的 構造』를 저술하여 세계의 학계와 사상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그는 과학혁명의 구조를 '패러다임(paradigm)'으로써 밝혔고, 그것으로 과학자 집단의 존재이유, 구조, 경향 등을 규정했다. 가령 經濟學에 이것을 적용시킨다면, 마르크스경제학·케인즈경제학 등은 모두가 독특한 세계관과 방법론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을 '마르크스의 패러다임' 또는 '케인즈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패러다임이론은 비단

科學發展의 構造 뿐만 아니라 경제·법률·예술 등 거의 모든 學問分野에 널리 적용되는 理論이 된 것이다. 孔의 패러다임은 하나의 과학업적으로서 상당기간 과학적 문제의 제기·형식·풀이의 모델 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패러다임이론은 넓은 범위의 文化思潮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한 개념이 될 수가 없다. 각 시대의 모든 법·과학·예술 등의 文化現象을 단순히 패러다임으로만 이해하기에는 그 개념에 내재된 범위가 너무나 좁다.

편의상 한 민족의 상고시대의 심성을 原型이라고 한다면,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현대로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은 그 원형을 유지하며 각 時代마다의 思潮를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사회를 체험해 왔다. 사회를 규정하는 中心的 패러다임은 시대의 특징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정해진다. 필자는 그것을 '시대마다의 패러다임을 통제한다'는 뜻에서 '법패러다임'이라고 이름지었다. 법패러다임이 결정적으로 변했을 때 하나의 歷史的 段階가 끝나고 새로운 사회가 시작된다. 그러나 民族原型은 그대로 각 시대의 법패러다임을 관통한다. 통일신라 이후 고려까지를 '佛敎文化'로 상징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오면 '儒敎文化'로 대체된다. 말하자면 불교적인 법패러다임이 유교적인 법패러다임으로 변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한국적이었다. 불교·유교 모두가 한민족의 원형에 여과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령, 조선시대 사회풍조를 상징했던 것이 바로 '東方禮儀之國'의 사상이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관찰해 보면, 조선시대의 빈약한 경제적 기반 위에 구축된 규범적인 문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物質 보다는 禮節, 精神性を 강조하고, 외적인 물질의 결핍을 내적인 힘으로 극복하는 시도이기도 했다. 이 價値觀은 그 시대의 문화현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孔의 패러다임보다 넓은 뜻을 지닌 것, 즉 일정한 사회적 조건 아래서 모든 문화현상에 공통된 價値基準과 方法論이라고 정의되어야 할 새로운 개념이다. 이것을 孔의 패러다임에 대해 '법(汎)패러다임'이라고 이름짓는다.

모든 文化現象은 원형과 그 시대의 경제조건과 정치이데올로기의 얽힘 속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그 문화현상은 또다시 社會構成員의 意識과 生活을 규제하여 時代의 文化精神을 형성한다. 이 시대의 문화정신이 바로 '법패러다임', 또는 '법형(汎型)'이다. 보다 형식적으로 말한다면 법형은 그 시대의 모든 학문, 문화 등의 방향을 규제한다(김용운, 『鎖國의 汎 파라다임』, 사이マル出版).

법형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원형은 각 시대를 관통한다. 고려·조선·현대의 학문,

文化의 特徵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원형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 시대의 범형이 달랐기 때문이다. 원형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그 민족이 존속하는 한 한결같이 작용한다. 따라서 ‘人間은 항상 原型에 의해서 규제되고 文化는 항상 범형 속에서 형성된다. 내일의 범형은 오늘의 文化現象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민족원형은 각 시대를 관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가령 같은 민족에게 시대마다 여러 법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범형이 그때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형은 그대로이다. 이 원형이 타의에 의해 무자각적으로 歪曲당할 때는 민족으로서의 一體性(identity)을 상실하게 된다.

4. 朝鮮時代의 汎패러다임

經濟의 基盤 위에 법률·과학·예술·윤리 등의 文化現象이 형성된다. 그러한 뜻에서 범패러다임은 경제적 양상과 적결된다. 이 점에 관한 한 인류사를 경제·생산으로 본 마르크스의 주장은 크게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니다.

빈곤에도 그 나름대로의 文化가 있다. 빈곤이 오래 지속되면 인간은 그것에 순응해서 살게 된다. 세계의 大宗教는 한결같이 가난을 찬양한다. 기독교에서는 가난한 자만이 쉽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불교에서는 財物에 대한 집착을 가장 큰 타락으로 여긴다. 이러한 思想은 모두가 인류사적으로 보면 物資가 크게 부족했던 시대에 형성된 것들이다. 이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共通의인 事實이었다. 유럽의 중세시대에서 존경을 받은 인물은 결코 財物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다. 새와도 말을 했다는 성프란체스코, 그는 貧者와 같은 생활을 한 사람이었다. 아무런 經濟的 目的도 없이 십자군전쟁에 참여하여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친 영국의 리처드 1세와 프랑스의 루이 9세에게 인기가 모여진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다. 하지만 産業革命을 거치고 산업이 발달했을 때의 기독교는 富의 축적을 오히려 神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食糧을 비롯한 중요물자가 부족할 때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첫째는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양상과, 둘째로 그 부족함을 도리어 合理化하는 倫理觀의 탄생이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범패러다임은 내적 생활, 정신성을 중시한 ‘東方禮儀之國’이었다. 傳統社會의 만성적 食糧不足에 시달린 한국인은,

(1) 남을 대접하는 일이 交際의 첫 단계이기도 했다.

(2) 웬만한 집안에서는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것을 격이 높은 자세의 첫 단계로 여겼다. 사랑채에는 늘 많은 손님이 있었고 시중드는 사람도 많이 두었다. 한국인의 원형에 내포되어 있는 共生思想은 조선시대의 범패러다임 속에서 함께 굶고 함께 먹는 미의식과 윤리관

을 형성했다.

財物에 관심이 큰 사회는 寫實의 美術과 現實의인 感覺이 發達한다. 즉 사물을 잘 관찰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가령, 통일신라시대는 사실적인 미의식이 발달했는데, 그것은 통일전쟁을 겪으면서 신라에는 많은 재물이 집중된 시기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재물에 한계가 나타나면 사물의 외관 보다는 마음의 內面性에 더 관심이 집중하게 된다. 물질에 대한 집착은 경멸되고 청빈을 귀하게 여기는 풍조가 나타난다. 이때 사실적인 미의식과 미술은 사라진다. 조선시대는 이러한 시대였다.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人間像은 物質의 缺乏을 내적인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清白吏가 찬양되고 精神性이 강한 선비를 우러러 보았다. 때문에 예술에 있어서도 매우 비현실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비사실적인 민화, 문인화에 있어서는 균형이나 대칭성을 무시한 글씨와 그림을 높게 평가했다(가령, 김정희). 또한 방랑시인 김삿갓과 같은 유형의 인물상을 좋아하는 것도 같은 범패려다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선말, 이러한 汎패려다임으로 우리 민족은 17세기 서양의 과학혁명을 거친 공업화의 충격을 맞이했다. 농촌중심의 사회, 빈한한 경제적 기반, 유교적인 가치관 등이, 공업화의 특성인 자본주의적 기업조직·공업적인 경제력, 과학적 합리주의 가치관 등을 소화할 수가 없었으며, 때문에 결국 좌절해야만 했다. 기존의 汎패려다임이 새로운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였다.

III. 原型과 企業

인간의 생활은 이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자본주의의 목적은 이익추구에 있지만, 그것도 단순히 합리적인 계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기업의 활동에는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기본정신인 근로정신·창의성·저축성 등이 적극적으로 발휘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

1. 儒敎와 資本主義

최근 'NICS(신흥공업국가)'라는 말이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 등을 총괄한 말이다. 특히 이들 국가는 한때 후진국이었으므로 급속한 經濟發展의 원인에 대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리고 그 발전과정의 공통된 精神的인 要因을 곧 儒敎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유교의 실상에는 차이가 있다. 漢族의 부흥을 꿈꾸었던 애국자 魯迅은 中國부패의 원흉을 儒敎라고 했다.

한국에 있어서 유교 또한 전근대적인 경제체제의 원흉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유교는 전혀 달랐다. 日本資本主義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찌(澁澤榮一)는 『논어와 주판』이란 책을 펴낸 바 있다. 주판, 다시 말해서 상업의 기본정신은 논어에 있고 근대 자본주의는 유교의 정신으로써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도쿠가와시대(德川時代)에 商人의 倫理性을 고취시켰다는 ‘석문심학(石門心學)’ 같은 전통을 내세운다.

일본 儒敎는 한국의 것에 비해서 그 社會的 機能과 實體가 다르다. 일본정치에 유교적 요소가 있었던 것은 명치유신 이후의 교육칙어(教育勅語) 정도였으며 근세 일본에서는 과거제도가 없었다. 무사단의 우두머리가 정권을 잡았고 무사들은 官僚化되어 있었다. 儒學者들은 겨우 글이나 가르치며 지내는 것이 고작이었고, 적극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儒學者들은 사회의 실력자나 서민들의 눈으로 보아도 그리 큰 존재가 아니었다. 어려운 글을 많이 아는 知識人이라는 정도라는 인식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과거시험의 중심이 유학이었고 그것은 곧 立身出世와 直結되는 것이었다. 전국 방방곡곡 어느 벽촌에도 서당이 있어 철저하게 儒敎敎育을 시켰고, 관혼상제 모두를 유교적 의식에 따르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正統 儒敎思想의 중심인 ‘孝’가 모두 ‘忠’으로 옮겨져 있다. 儒敎思想의 중심인 姓氏에 대한 관념도 없고 동성간에 결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일반 서민들은 유교의 실천강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였고 儒敎的인 禮의 觀念도 없다. 시부사와가 주장하는 유교, 또는 江戸시대의 상인철학인 ‘석문심학’에 내포되어 있는 日本的 資本主義의 정신은 오히려 그들의 원형에 내재하고 있다.

유교를 비롯한 어떠한 外來思想도 그 민족의 원형에 여과됨으로써 그 내용은 각 시대의 법패러다임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2. 韓國的 創意性

발명과 창의력은 흔히 서구의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한정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민족은 저마다 특이한 발명과 창의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산(韓算)’과 ‘화산(和算)’이라는 한국, 일본의 傳統數學을 비교해 보면 곧 이들 사이에 가로놓인 엄청난 차이에 놀란다. 일본수학(화산)은 임진왜란때 한국으로부터 가지고 간 수학책을 근거로 하여 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한국의 수학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갖는다. 한국에서는 易理를 중심으로 하는 魔方陣의 연구가 성행했는데 일본인은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넓이의 무한수열의 합과 같은 것을 研究目標로 삼고 있다.

言語構造는 韓國과 日本이 완전히 같다. 처음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건너간 이두(吏讀)문

자를 사용했으나, 우리가 한글을 만들어낸 것과 같은 이유로, 그들 나름대로의 가나(假名) 문자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한글과 일본 가나의 창조과정은 전혀 다르다.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자국어에 어울리는 문자(한글, 가나)를 만들 必要性이 있었지만 그 方法論과 哲學의 背景이 달랐으므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생겼다.

한글이 중국 고전철학과 조선의 전통의식의 소산이라면, 일본 가나는 일본 特有的 단순한 편의중심적 사고에서 나왔다. 한자의 ‘加(가)’에서 力(가), ‘伊(이)’에서 亻(이)라는 식으로 한문자에서 그 일부만을 떼어서 적당히 만든 것이다. 이에 비해 한글은 陰陽五行說의 哲學을 바탕으로 엮여져 있다. ㅇ은 양, ㅁ은 음이며, 그 論理의 근거는 ‘天圓地方’이라는 철학에 있다. 한국 산학이 주로 易理에 바탕을 둔 마방진에 주력한 데 비해 일본 산학이 細部를 작고 짧게 보는 무한수열을 연구한 것처럼, 한·일의 문자에도 思想性和 無思想性, 正統性和 便宜主義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주판이 일본에 건너간 것은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 그런데 그 주판은 일본으로 건너 가자마자 금방 윗 칸의 두 개의 알 중 하나가 없어지고 그 후 아래 칸의 다섯 개의 알도 하나를 없애고 네개의 알로 되고 만다.

그 이유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결코 일본에서 옛부터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발명의 경우와도 같이 일본의 便宜主義의 思考에서 나온 것이다. 資本主義 發達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발달은 필수이다. 일본에는 복식부기가 없었으나, 한국인은 복식부기를 오래 전부터 발달시켰으며 그것은 四介置簿法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기 발달의 주원인이 韓國人의 陰陽論의인 사고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尹根鎬, 『四介置簿法』). 일본인이 주어진 것으로부터 적당히 편의위주로 개량해 나가는 데 비해, 韓國人은 正統의인 哲學을 원칙으로 내세워 개량보다는 차라리 철저한 改革을 시도한다.

오늘날도 그 傳統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日本이 經濟大國이 된 가장 큰 이유는 創造的인 大發明品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남이 일단 만들어낸 상품을 보다 정교하게 개량하는 ‘改良工學(improvement engineering)’에 힘쓰기 때문이었다. 스테레오나 테이프 레코더에서 워크맨이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어 낸 것도 그 본보기라 할 수 있다.

改良工學의 강점은 R & D(research and development), 즉 연구개발비를 크게 소요하지 않는 데에 있다. 한글 창제시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만들고 수많은 우수한 학자들을 총동원했었다. 또한 그 研究開發費는 대단하였다. 한편 한자의 伊(이)에서 亻, 加(가)에서 力을 만든 일본인은 문자의 개발에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았다.

일본 소니 전자회사의 총수 모리타 아끼오(盛田昭夫)는 ‘스기마(빔튬)산업’을 주장한다.

“두 개의 원이 접할 때 반드시 그 사이에는 빈틈이 생긴다. 그곳에 새로운 원을 그려라.” 즉 거대한 산업들이 팽팽하게 성장하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빈틈이 생기므로 그 틈에서 成功 하라는 것이다. 이 주장에서는 日本數學(和算)의 發想法을 연상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고 있는 것은 ‘思想性’이다. 이 사상성은 우리 민족의 원형이 나름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 교리내용은 姑捨하고 그 결과만을 본다면, 통일교, 순복음교회가 기독교의 본고장에서까지 그 교세를 떨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가 서울에 있는 것도 특이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다. 한편 北韓에서도 역시 思想性을 중시한다. 그들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것은 ‘主體思想’이다. 이렇듯 외국사상을 심도있게 한국화하여 普遍性을 지닌 思想體系로 세우는 전통은 조선시대 주자학(이퇴계, 이율곡)이나 원효의 불교사상에서도 볼 수 있다.

韓國人의 思想性和 일본인의 개량공학의 신장은 결코 우연이 아닌 각자의 원형의 반영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활동 역시 그 구성원들의 創意性, 조직에 대한 忠誠心 등 그 민족의 원형에 내재하는 온갖 가치적 요소들이 응집되어 나타나는 複合的인 文化現象이다.

3. 韓國原型과 企業

韓國傳統社會의 주산업은 벼농사였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같은 동북아시아 문화권의 벼농사 국가인 중국·일본의 그것과는 수리방법에 있어 현저하게 다르다.

6·25가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한국민에게 남겨준 것은 사실이다. 한편, 결과적으로 한국적 汎패러다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즉 보수적인 농촌구조는 무너졌으며, 젊은이는 군대 생활을 통해 기계의 조직을 익혔고 공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고를 터득하여, 국민적 차원에서의 가치관이 효율·신용추구 쪽으로 기울어졌다. 하지만 전통적인 한국민의 사고는 공업화에 크게 반영되어 있었다.

韓國農業은 혈연중심의 부락에서 공동작업이 주였고, 인위적인 수리시설보다는 하늘의 비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天水畚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1년 강우량의 절반 이상이 단 며칠 사이에 퍼붓는 집중호우인 것이 보통이다. 풍년은 오직 集中豪雨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놀랄만큼 이 농업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韓國經濟의 中心은 소수의 재벌이다. 한국동란 이후 문자 그대로 때를 잘 잡아 맨손으로 財閥이 된 것이다. 재벌의 성공은 거의가 정부의 금융지원과 행정지원에 의한 것이다. 세금의 특혜, 공장부지의 분양, 저리금융, 외국차관에 대한 정부보증의 획득 등이 없이는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政治資金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 官權과 結탁된 經濟活動은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거

의 없었던 韓國濟濟의 傳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삼장사, 개성상인 등도 거의가 官權과의 밀착이 있었다. 한편 官權과 밀착된 상황 아래서는 단순히 순수한 능력만으로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는다. 혈연관계인 형제·부자간 등의 관계에 위탁하게 되는 것이다. 韓國企業에 공공관념이 희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옛날 혈연부락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같은 현상이 오늘의 企業運營에 나타나는 것이다. 한 재벌의 업종이 다양화되면 총수의 참모진들이 그 뜻을 받들어 경영에 참가한다. 이것은 처음 살기좋은 지리적 위치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 그 옆으로 아들, 손자들이 집을 짓고 살았던 韓國的 自然部落의 모습이 다. 傳統社會의 同族部落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의 친족중심의 경영을 일삼는 재벌이다.

韓國經濟는 격변하는 世界情勢를 잘 이용하여 힘을 얻었다. 6·25 전쟁 후의 산업부흥, 베트남전쟁, 오일쇼크 이후의 오일머니(oil money) 범람 등 집중호우처럼 돈이 쏟아졌던 기회가 있었다. 재벌의 총수들은 마치 그들 조상들이 천수답식 집중호우를 이용한 것처럼 그런 기회를 이용한 것이다.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기회를 포착, 침식을 일으키면서 논에 물을 대고 모를 심었던 조상들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의 재벌들에게 있다. 거기에는 좋은 기회를 포착, 일하는 데에는 열심인 韓國農民의 극성스러움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서 韓國企業에 있어서 그 組織의 모태는 전통적인 自家-村인 것이다. 종가를 中心으로 가까이 형제와 친척들이 모여 산다. 기업에 있어서 회장은 아버지, 산하 각 회사의 사장은 아들 또는 동생이나 가까운 혈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韓國企業의 擴張方式도 옛 마을에서 이용했던 천수답식 농사법과 같다.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단비가 내리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였다. 한강 잠수교는 처음에 큰 비가 내릴 때 며칠만 잠기는, 이를테면 마을의 징검다리식 발상으로 건설되었다. 그후 조금 여유가 생기자 현재와 같이 다리 밑으로 유람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세번이나 공사를 한 것이다. 韓國企業도 이와 같이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기회를 재빨리 포착하여 擴張해 왔던 것이다.

韓國企業은 外國企業에 비해 그 조직구조가 수직적이며, 경영자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經濟學者 칼 모스코비치(Karl Moskowitz)는 한국기업의 주목적은 시설확장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韓國企業家들이 利潤 보다는 成長에 더 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企業이 자가일촌식이므로 회장의 家父長의 性格이 강했고, 또 천수답과 징검다리식 농법의 경영방식으로 기회만 있으면 당장의 이익보다는 앞으로의 可能性을 믿고 확장을 한다. 즉 모험(venture)적인 것이다. 한국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에만 가면 그만' 또 '外上이라면 소도 잡는다'란 말이 있다. 정확한 計劃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임기응변식의

로 주어진 상황을 잘 이용하는 것을 능사로 삼았다. 한국적 벤처비즈니스란 천수답식 농업의 사고방식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언제 올지도 모를 호기를 믿고 工科大学을 세우고 工業團地를 조성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 工業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항제철만 해도 처음 건설시 매우 모험적인 性格이 있었고 세계은행에서도 그 採算性을 의심할 정도였었다. 그러나 드디어 그 成功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韓國經濟는 무의식적으로 몇 세대 전까지 익혀왔던 생활의 지혜(원형)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經濟는 이렇듯 수시로 변하는 世界經濟의 흐름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서 오늘날의 位置에 올랐다. 오늘날의 世界經濟는 情報化現象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情報化時代의 중요한 특징은 세계정세의 극심한 변화에 있다. 톰 페터스는 최근 그의 저서 『우수기업의 조건』에서 4년 전에 미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들을 골라 그 우수한 이유를 열거했으나 그후 불과 3년 이내에 대부분 기업이 그 우수하다는 조건때문에 몰락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드러커는 “아무런 經濟理論을 지니지 않은 일본기업은 수시로 組織力과 보수적인 政策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단절의 시대』)고 말하고 있다.

아무런 經濟基盤도 없이 거의 無인 상태에서 출발한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狀況에 適應한 셈이다. 그것이 곧 韓國의 벤처비즈니스의 특성이다. 韓國의 벤처비즈니스는 미국 또는 일본의 그것과는 다르다. 후자가 새로운 것을 찾아 계속 개발하고 개량함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한국은 그보다는 임기응변식 狀況에 모험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성격의 것이다.

IV. 韓國의 近代化

1. 工業社會의 美意識

工業社會에서는 모든 제품이 규격화된다. 미국의 켄터키치킨, 햄버거 등은 이미 韓國社會에 깊이 보급되어 있다. 60년대 石油文明의 특성은 규격화된 大量生産型과 人力節約型의 유형을 낳았다. 이것이 大量生産化를 목적으로 하는 공업사회 的 범패러다임을 형성한다.

工業의 巨大化는 균질적인 의식의 형성을 필요로 한다. 지방에다가 생산공장을 설치해 놓고 전체적인 중추관리기구는 서울에 둔다. 때문에 地方自治를 압박하는 거대한 中央統制機構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韓國의 近代化는 곧 공업사회를 뜻했고, 그것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強力하게 推進되었다.

軍隊는 오랫동안 體系의인 훈련을 받았고 특히 한국동란 이후에는 合理的인 教育을

받았다. 문관의 단체나 조직중에서 비교적 명확하고 확실하게 직무를 관리·수행한다는 점에서 군대에 가까운 수준의 보기는 없다. ... 이러한 자신이 1961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군부지도권의 확립을 가능케 했다. 강력한 군부의 존재는 과거 수세기 동안의 韓國歷史에서는 異例의이었다. —G. 핸더슨 『조선의 정치사회』—

근대유럽은 工業社會를 이루기 위해 그들의 中世的인 不合理精神에서 탈피해야 했다. 말하자면 ‘神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3세기에 걸쳐 체험했다. ‘종교개혁’과 ‘문예부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韓國의 工業化는 내적인 자각없이 오직 군대적인 힘에 의한 것이었다. 5·16 공약의 하나가 ‘意識改革’이었다. 이 내용은 무의식적으로 한국 민족의 原型에 대한 도전을 뜻했고, 조선시대 농업적인 사고를 공업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였다. 즉 工業社會에 적응할 수 있는 근질적인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工業社會의 인간은 시간개념을 정확히 하여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일정한 일을 기계처럼 되풀이하는 인내심을 갖는 것 등 무개성적이고 명령과 계약만으로 오랫동안 單純勞動에 전될 수 있는 인간상이다.

2. 工業化에서 파생된 矛盾

원래 韓國農業社會는 심한 자연의 변화에 적응·순응하는 벼농사였고, 그것을 반영하여 한국인의 법패러다임에는 독특한 自然主義的 경향이 있었다. 다음의 시조는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칭산은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물절로
이 속에 절로 자란 몸
늡기도 절로 하리라.

—金麟厚 「自然歌」—

時間觀의 개념도 ‘담배 한대 참’(담배한대 피우는 시간)이라는 식의 표현에 있었고, 數에 대한 개념도 ‘두서너개의 물건’이라는 식이었다. 韓國農村의 非規則性은 “집집마다尺이 다르고 마을마다 升이 틀리다”는 글이 경국대전에 있을 정도이다. ‘잘 살아보자’는 구호로 조선시대 농촌적인 사고에 도전한 것이다.

원래 國民學校(Volks Schule)制度는 독일의 나치스 발명의 제도였고, 日本軍國主義政府는 1941년 진주만의 공격에 돌입하면서 이 제도를 수용했다. 이 제도의 주목적은 國民의 均質化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韓國은 독일과 일본 등이 폐지한 후에도 여전히 國民學校制度를 고집하여 중학교, 고등학교교육까지 평준화의 미명아래 철저히 근질화

교육을 연장·실시하였던 것이다. 현재 韓國의 중학교는 단일의 教科書를 사용하고 있고, 고등학교 教科書는 엄격한 검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入試制度는 국가관리로 하는 ○×식 위주의 시험이고 대학에서는 국민윤리, 군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韓國은 傳統的精神·制度外樣 등을 청산하여 국가관리하의 최적공업사회로 형성되었다. 모든 것이 規格化되어 가고 工業化되어 가는 과정에서 거대화와 대량생산의 미덕이 시대의 범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진 것이다. 엄청난 규모의 重化學工場이 병립되어가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교육시설, 유흥오락 경기장, 음식점 등 공업사회문명의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工業化過程에서의 변화는 경제적인 혜택을 거치면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발전한다’라는 미명아래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問題點을 느끼지 못한다. 종래의 가치관이 企業이라는 組織에 매몰되어 버린다. 倫理性이나 使命感보다는 합리성, 효율성만을 좇아 인간성이 메달라간다. 화이트칼라의 범죄와 심각한 관료의 부패가 생기는 원인도 그 때문이다. 스테레오 타입의 엘리트층이 形成된 것이다. 이 새로운 엘리트층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1) 科學的·定量的 分析을 지나치게 신봉하여 情緒的·傳統의 사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2) 傳統的 價値觀과 思想性을 무시하고 오직 기술적 합리성과 그 실현에 집중한다. 經濟成長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믿는다.

(3) 관리능력을 중시하고 權力指向的이다.

이들 엘리트층은 권력을 지닌 政治集團과 결탁한다. 권력을 지닌 정치집단은 정책시행의 필요상 엘리트층에게 合理化의 구실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정치세력과 이들 엘리트층 사이에 連帶感이 형성되었다. 이들 엘리트층은 韓國產業社會의 범패러다임 형성과정에서 태어난 새로운 類型의 인간들이고 사회적 역할의 면에서는 조선시대 벼슬아치의 자리에 해당하는 계층이다. 그러나 이들은 조선시대의 선비에 비해 倫理性이 크게 결핍되어 있었다.

先進工業國의 肯定的인 發展過程을 보면 공공도덕(윤리성)의 향상이 經濟發展의 必須條件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오직 교육의 올바른 보급만이 그 目的을 성취할 수 있음을 뜻한다(갈브레이드, *The Voice of Poor*). 그러나 韓國近代化는 짧은 기간에 당장의 경제 효과만을 구하는 데 급급하였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높이 외쳤다. 균질화된 대중은 빈부의 격차를 좌시하지 않고, 부익부·빈익빈의 사태를 강하게 느껴왔다. 韓國人의 平等主義的인 원형은 다양화보다도 균질적인 사회를 쉽게 형성했고, 그 반면에 균질적인 사회였기에 빈부격차에 대한 의식은 심각하게 커졌다. 不均衡的인 社會現象에 대한 불만은 높

아졌다. ‘과의금지’라는 강압적인 제도가 갑자기 생긴 원인은 바로 국민의 불만을 일시적으로나마 무마시켜 보자는 이유에서였다. 최근에 勞使紛糾가 격렬하게 일어났던 원인도 貧富의 隔差에 대한 의식과 전통윤리를 외면한 社會矛盾 때문이었다.

‘쟁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사람 팔자 시간문제’라는 말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와 함께 파생된 것이다. 民主主義를 외치는 學生, 勞動爭議를 하는 노동자들..., 스스로의 의사를 밝히는 모든 節次는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행동과 구호의 외침으로 되어 왔다. 內容은 달라도 의사의 표시법에 관한 한 그 方法은 똑같았던 것이다. 또 이에 대한 體制階層의 태도 역시 같은 정신적 맥락에 있다.

V. 情報化時代

1. 情報社會의 到來

새로운 時代가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미 십여년 전 다니엘 벨은 ‘脫工業社會(post industrial society)’의 도래를 주장했다. 工業社會終熄을 알려주는 선언이었다. 그것은 바로 ‘情報化時代’를 뜻한다. 벨은 인류사회 진보의 발전단계를 산업화 이전의 사회와 산업화 사회, 산업화 후의 사회로 나누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산업화 후의 사회’란 有形인 物財의 생산을 주로 하는 사회에서 無形의 知識·情報의 生産이 주가 되는 사회, 즉 ‘知識社會’가 된다는 뜻이다. 하머 칸의 『기원 2천년대의 세계』에서도 같은 인식아래 情報化社會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토플러는 『미래의 충격』에 이어 『제 3의 波濤』 등에서 현재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변화는 農耕과 產業革命에 이어지는 ‘제 3의 波濤’라 하며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다.

많은 經濟學者·社會學者들이 미래 인류사회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공통된 사실은 社會構造가 근본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한다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인식은 世界的인 規模로 공통적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헤겔이 말한 것처럼 “실상은 지나간 뒷모습에서 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것”임을 실감하게 할 뿐, 變化는 현재의 추세의 延長線上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변화는 革命的이다. 갈브레이드의 『불확실성의 시대』, 드러커의 『단절의 시대』라는 그들 저서의 제목은 未來가 현재와 크게 다름을 실감있게 느껴지게 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의 단편에서 내일의 일을 어렵으로나마 확대·예견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情報化 時代의 特性

世界는 이미 情報化 時代에 돌입하고 있다. 정보란 '일의 진행에 있어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情報社會의 特性은 그 선택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정보의 범람으로 文化現象의 多樣化와 價値觀의 多極化가 이루어지는 데 있다. 거대화된 생산공장에서 규격화된 물건의 대량생산보다는 풍부한 정보를 통한 개성적인 상품이 요구된다. 이 점은 인간성에 관해서도 적용이 되어 오늘날 지향되는 劃一화된 人間型보다는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한 인간이 배출되어 갈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선진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情報社會의 개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情報'의 뜻이 정리되어야만 한다. 정보란 i) 특정 문제·대상에 대한 평가 資料 ii) 體系화된 知識으로서 판단을 내리는데 資料가 되는 것 등 여러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意思決定을 위한 資料'라고 넓게 解釋한다. 따라서 '情報社會'란 '정보가 범람하여 의사결정의 범위가 넓어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정보화된다는 것은 實用的인 機能 외에 정보의 역할이 지니는 비중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가령 물건을 구입할 때는 물건의 기능 이외에도 기호, 취미, 모양 등 感覺的(정보적) 要素에 호소하는 部分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 사실은 정보적 가치가 높아짐을 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드웨어(hardware)보다는 소프트웨어(software)의 증시이다.

상품의 情報的 價値의 증시는 情報時代의 범패러다임의 기반인 美意識과 직결된다. 문명의 정도가 낮은 시기일수록 상품에 있어 정보의 비중은 낮았으며 단지 實用性만을 중시했다. 그러한 뜻에서 상품의 情報性比重을 가지고도 범패러다임의 性格을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명의 척도가 낮을수록 기능면이 증시되고 情報的 價値는 사치 또는 악덕으로 간주되었으며 의·식·주는 건강과 실용성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價値基準이 일반적이었다.

취미, 무드(mood)의 증시는 情報化의 특성이다. 세련된 情報產業은 정보적인 것, 즉 서어비스적인 요소가 높아진다. 전자시스템이 발달하고 곳곳에 자동기가 설치되지만, 한편에서는 정보감각의 증시로 인간적 서어비스의 요구는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人間은 量보다 質을 구하게 되고 물건보다는 서어비스와 정보(정보적 요소)를 더 찾는 傾向이 나타난다. 정보사회는 단순히 情報手段으로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단계부터 합리적인 產業社會를 거쳤을 때 거기에 정보적 요소가 가미됨으로써 조속히 발달된다. 情報社會에서는 工業社會의 倫理觀과 美意識 등이 근본적으로 역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규격품의 大量生産보다는 多樣少量生産의 경향이 확대되어 간다. 물품의 유행기간도 짧고 신기술의 수명도 짧다. 大

量生産이 성할 때 ‘소비는 미덕’이란 말이 설득력을 가졌다. 하지만 정보가 범람하게 되면서 그 정보를 다량으로 이용하는 미의식이 형성되고, 그것과 직결되어 윤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企業의 크기

中小企業과 大企業을 비교해 보면, 생산능률의 면과 실용적인 기능면에서는 분명히 대기업이 有利하다. 하지만 情報的 機能面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체가 유리할 것이다. 최근의 미국 산업체에서도 “몇몇 예외는 있지만 소수의 인원을 갖는 작은 조직이 거대한 회사·연구소보다 革新的이었다”[P.F. 드러커, 『단절의 時代』, (P.F. Drucker, *The Age of Discontinuity*)]라는 말을 하고 있다.

大企業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시장의 요구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生産施設을 만들고 나면 쉽게 개량, 解體할 수 없고 오히려 기존시설에 적응할 市場을 자신의 형편에 따라 선전·광고 등의 수단으로 강력히 擴張해 나가야만 한다.

中小企業에 있어서의 불리한 정보의 입수, 복지시설 등은 組合制度和 같은 새로운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科學·技術이 발전했다해도 그것을 經濟性과 직결시키는 기능이 약할 때는 모처럼 얻어낸 발명에 의한 이득을 남에게 빼앗기는 수가 많다. 전후 英國은 훌륭한 신제품을 많이 내놓았다. 항생물질, 배터리, 제트엔진 등은 모두 영국인의 발명품이고 전자계산기, 원자로 發明에 있어서도 영국인의 貢獻度는 매우 컸다. 하지만 英國企業의 保守性은 오히려 그 발명품이 가져다 줄 경제효율을 다른 나라 이를테면 독일, 일본, 미국 등으로 돌렸던 것이다.

거대한 과학·기술의 발명이 그대로 技術革新으로 성공시키는 일은 드물다. 그것은 발명가가 시장의 승리가 되는 경우가 적은 것보다도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순수한 연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것을 수용하는 능력이다. 이들 사이의 균형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 情報社會의 特性은 심한 변화에 있고 과학기술의 정보독점 기간도 매우 짧다.

거대한 產業體에만 의존한 경제체제가 실패하고, 일본, 독일이 성공한 이유는 패전의 잣데미위에서 새로운 中小企業의 組織體가 많이 세워졌기 때문이었다. 소련을 비롯한 전 공산세계는 통일된 管理經濟體制의 확립시도에 실패했다. 중국·동구라파에서도 좌절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관료기구때문에 빠른 변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中小企業은 생산시설이 소규모적이므로 빠르게 기회를 잡아 변신할 수가 있다. 특히 상품의 정보적 요소가 요구되고 상품의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소규모 조직체가 유리하다.

4. 餘暇의 뜻

B. 러셀이 『怠慢의 讚揚』에서 餘暇의 뜻을 주장한 바 있으나, 오늘날 정보화시대의 여가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一週 5日間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많다. 이 현상을 실용적인 면과 정보면으로 나누어 생각한다면 인간생활이 실용적인 면보다도 감각적인 면에 더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에서 여가의 문제는 정보사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여가는 人間生活에 안정감을 주므로 분명히 情報的 技能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정서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도 훨씬 높다. 때문에 서어비스산업은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원주택, 빌라, 레저타운(스키장, 운동시설) 등이 발달되고 앞으로 이 분야의 정보산업은 1차, 2차 산업보다 비중이 높아져 갈 것이다.

국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앵겔계수나 GNP와 같은 것이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레저지수(한가족당 레저에 소비되는 액수비율)'와 'GNP에 대한 정보지수(출판물, TV, 컴퓨터 보급률을 종합한 비율)'라는 새로운 지표척도가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어 나갈 것이다.

5. 정보사회의 교육

20세기 최대의 科學理論은 한결같이 人間能力의 한계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이젠베르크(W.K. Heisenberg)의 '不確定性的 原理', 아인슈타인(A. Einstein)의 '相對性原理', 괴델(K. Gödel)의 '不完全性定理' 등은 마이크로(micro) 세계에 있어서의 관찰의 한계, 운동의 한계, 수학의 진리성의 한계를 제시한다.

또 최근의 거대기술개발에는 영웅이 없다. 20세기 과학기술의 결합을 상징하는 발명품으로 원자력의 이용, 레이더, 전자계산기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科學的 根據는 그것이 현실화되기 훨씬 이전에 理論的으로 그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었고 수많은 科學者들이 협력하여 발전해 낸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는 개인이 과학의 영웅으로서 활동하는 범위는 지극히 좁게 되었다. 넓은 분야에 걸쳐 洞察力과 分析·綜合力이 뛰어난 과학자가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매우 높다. 이 교육열을 설명해 주는 적절한 자료가 있다. 일본과 한국의 고등교육취학률은 1981년의 경우 한국이 32.3%, 일본 37.4%로 일본이 조금 앞섰다. 그러나 그후 韓國의 교육열은 계속 상승하여 현재는 日本을 앞서고 있다. 이것이 韓國의 工業化를 성공시킨 중요 요인이었다.

앞으로 情報化時代에 맞춰 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教育制度는 개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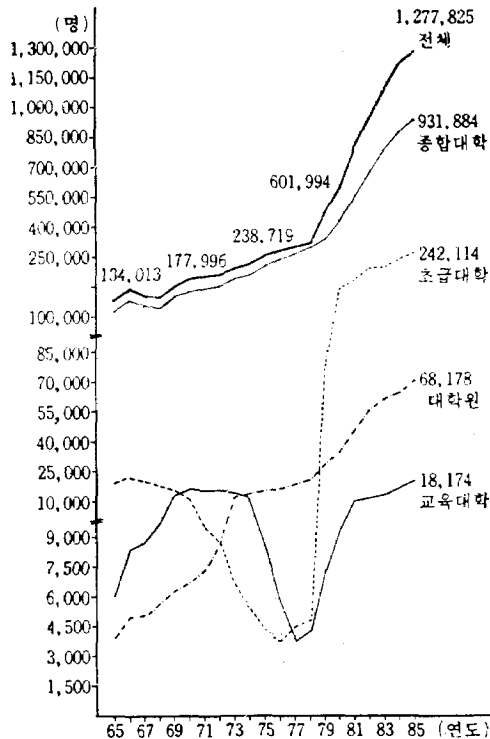
〈表 1〉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단위 : %)

국명	해당연령(세)	1965	1970	1975	1980	1981
한국	18	('66) 7.5	7.1	7.7	21.9	32.3
일본	18	17.1	24.0	38.4	37.9	37.4

資料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편, 『고등교육자료집』(1986년도)

〈그림 1〉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한국인의 교육열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너무 빠른 사회변혁으로 대학은 보수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6. 情報社會의 大學

두 개의 文化, 즉 自然科學과 人文科學의 分業에 關係서는 C.P. 스노우의 “The Two Cultures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1959)”이란 지적이 있었으나, 앞으로의 시대에 크게 요구되는 知識人은 이 두 분야에 고루 조예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은 經濟學과 未來學의 분야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의 기술은 自然科學·人文科學의 구별없이 인간지식의 전체체를 포함하여 그것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있다. 새로운 기술에는 이들 사이의 명확한 구별이 없다. 새기술에서는 물질과 정신 세계의 분열—3백년 전에 데카르트가 서구사상 속에 도입한 이론—이 극복되어 가고 있다”(P.F. 드러커, 『단절의 시대』). 이어서 드러커는 人格·形態(게슈타르트)라는 근대 심리학의 形態개념은 19세기 물리학의 “場의 이론”에서 출발하였고, 한편 생물학의 발전은 심리학에서 나왔고, 현재의 유전학의 위대한 진보는 空間的 優位性(primacy of spatial relationship)을 발전한 물리학에서 나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수학에서는 최초로 構造主義的 사고를 대상화했고(공리적 방법론), 최근의 후락탈(fractal) 이론은 문학·예술·사회·인류 등은 물론 거의 모든 자연과학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전자계산기의 발달은 數學이 自然科學을 위한 學問이라는 오해를 완전히 불식하였다. 수학은 자연과학·사회과학은 물론 미술(컴퓨터 그래픽)에서 전자음악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종래의 교육과정으로는 도저히 情報化時代의 要求를 만족시킬 수 없다. 정보화시대의 상품은 기능보다 정보에 더 가치가 있음을 이미 언급했고, 새로운 상품의 개발은 물론 부가가치 또한 정보(지식)로 높아진다. 새로이 탄생하는 產業은 육체노동자보다는 지적 노동자를 요구한다. 가령 전자계산기 분야에 필요한 인원은 더욱 더 높아질 추세에 있다. 한편 평균수명의 연장과 전자기술의 발달로 고연령층의 고용의 기회가 많아진다.

大學은 더욱 많이 보급되고 大學院 教育이 普遍化된다. 대학은 엘리트교육이라는 종래의 개념이 바뀌어져 가고 영재교육, 시민교육, 평생교육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다. 특히 TV를 이용한 교육프로그가 널리 보급될 것이고, 대학은 保守的인 態度를 버리고 과감히 情報社會化의 물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대학인 지식인은 이제 완전히 종래의 엘리트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식(정보)이 개인이나 특수계층의 것이 아닌 大衆에게 널리 보급되는 것이 情報社會의 特性이다. 때문에 전문지식 이외에도 넓은 분야의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이 요구된다. 大學의 方向은 빠르게 변하는 社會的 發展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개발에 목적을 두고 스스로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創造的인 人間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의 교육은 한 분야의 전공보다는 여러 분야의 학문을 綜合·體系化한 system engineering적인 사고를 기르는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大衆教育에 근거를 두고 영재교육을 그 제도 안에서 가능토록 하는 方法을 모색해야 한다. 大衆教育은 결코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 제도 아래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조기졸업제도나 특

수대학원을 따로 설립하는 방법보다 훨씬 발전적일 것이다.

어느 사회이든지 우수한 지도자나 영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특히 情報化 社會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의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시대이다. 人類는 이 시대처럼 정보를 많이 창출하고 또 이를 지닌 知識人, 科學者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때가 없었다. 정보시대의 범패러다임은 지식과 문화의 창조적 작업을 우선시한다. 工業化時代의 범패러다임인 효율성, 합리성, 생산성의 중시와는 단결된 미의식이다. 지식은 단순한 논리의 체계가 아닌 높은 倫理性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높은 윤리성의 확립을 위해 이 시대의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무거워진다. 미래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倫理性 높은 知의 人間을 기르도록 힘써야 한다.

7. 韓國人과 情報社會

韓國은 工業化社會를 급속히 성장시켰다. 공업화과정에서 倫理性에 관한 反省을 할 여유를 가질 겨를이 없었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의 공업사회는 너무나 빨리 이루어졌다. 工業化의 原動力은 ‘잘 살아보자’라는 구호와 함께 물신숭배를 낳았고, 전통적인 한국의 마을의식과 천수답 농업의 사고방식, 주관성 중시 등을 물리적인 힘으로 전환하고 공업사회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러한 뜻에서 한국공업사회의 범패러다임은 韓國的 物質主義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農業社會의 정서가 工業社會의 합리성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윤리성과 현실성사이의 조화를 충분히 검토할 사회적 분위기가 없었던 것이다.

새로이 우리가 맞이하는 情報化社會는 量보다는 質, 하드웨어(hardware) 보다는 소프트웨어(software), ‘잘 살아보자’ 보다는 ‘보람있게 살아보자’는 시대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그 내용은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情報化 社會의 特性은 가치의 다양화, 고등교육의 일반화, 권력의 다극화, 정치경제의 국제화 등에 있다.

韓國人은 평등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주관적인 면이 강하다(김용운, 『한·일민족의 원형』).

그동안 정치·경제의 혼란속에서 학생·노동자를 포함한 民衆들의 외침과 군부의 싹쓸이적 사고는 韓國人의 原型과 現實의 葛藤으로 일어난 일들이다.

“경제성장력과 국제경쟁력과 15세 이상의 취학인구의 증가율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P.F. 드러커, 『단절의 시대』). 우리나라의 15세이상 취학인구율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韓國의 수많은 人材들이 미국에 두뇌수출되고 있는 것은 韓國의 經濟構造가 그만큼 知識의 基盤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정보화시대에 임한 교육팽창계획은 情報化社會의 특성을 감안하여 팽창되어야 할 것이다. 情報化社會에서는 經濟發展의 성과

가 곧바로 知識投資와 知識資源에 비례한다. 한국의 교육열이 앞으로의 經濟發展에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조선시대의 과거지향적인 價値觀은 한국의 공업사회의 과정에서 온존되고 있었던 것이다. 民主化·情報化와 더불어 이러한 가치관은 전면적으로 도전을 받는다.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가 教育改革인 것이다.

韓國人의 原型인 강한 종교성·사상성·교육열 등이 긍정적으로 발휘된다면 지난 20년간에 이루어 놓은 최적공업사회의 범패러다임보다 성공적으로 새로운 한국의 범패러다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시대적 조건하에서 成功한 社會가 다음 시대에도 그대로 성공한 예는 드물다. 時代的인 狀況에 알맞게 새로이 變身해야 한다.

19세기 말 영세한 農業經濟의 기반만을 가졌던 한국은 공업·기술이 중심인 近代化의 충격을 적절하게 소화할 수 없었으므로 드디어는 식민지화의 낙에 빠져들어 갈 수 밖에 없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당장에 검토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오늘의 한국은 情報化時代의 물결을 원만히 수용할 수 있는 能力을 갖고 있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1) 거대한 財閥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공업화의 연장선상에서 정보화사회의 다양성, 다극성을 형성할 수 있을까?

(2) 한국인의 원형과 情報化社會의 미의식(가치관) 사이에 전개되는 긴장관계의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3) 최근에 이루어 놓은 工業化를 성공시킨 한국인의 원형은 어떤 탈바꿈을 할 것인가?

우리의 교육열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조선시대 과거중심의 교육관의 연장에 있는 出世主義的인 것이다. 이것은 工業社會에서는 돈을 벌고 고위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시대에는 세속적인 출세 보다는 스스로의 內的인 可能性을 개발하기 위한 지적 육구의 충족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情報化社會가 되어도 工業化社會의 시설이나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工業的인 要素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상품의 정보적 가치가 높아짐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선은 지난날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인간소외현상을 가져온 여러 문제에 대해서 깊은 反省과 改革이 요망된다.

韓國人은 어김없이 각 시대마다의 韓國的인 범패러다임을 形成했다. 그러나 近代化와 工業化의 시기에는 윤리적인 요인이 희석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범패러다임은 지난날의 오류를 의식하면서 한국적인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